

# 일상 속에서 禪 구현해야



49 평상심사도 (괄)

중국 당 말에 이르러 또 한 명의 유명한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의 손제자로 중국 전통선인 조사선을 확립시킨 당사

란 '조작심이 없는 마음' '너와 나를 차별' 또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와 보살의 마음이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달마의 안심법문(安心法門)도 평상심입니다. 어느 날 혜가가 스승 달마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여쭙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그래? 그렇다면 그대가 말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지고 오게.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리라."

혜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 '선'은 초현실 초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평상심은 번뇌 없고 집착 없는 깨달은 자의 마음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평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이다(平常心是道)."

'선'이란 초(超)현실, 초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하면 문학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마음' 또는 '평상적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이란 불안이나 근심 걱정 등 번뇌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욕망과 분노, 괴로움 등 '번뇌가 없는 마음'입니다. '무심한 마음' '정정한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당면 공한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평상적' '일상적'이라는 말은 문학에서도 자주 씁니다. 특히 수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대충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는 모습이 날이면 날마다 똑같다(똑 같은 패턴이 반복됨).

둘째, 공연히 이 일 저 일로 변잡했는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다(원위치로 되돌아옴).

언어는 같지만 의미는 정 반대입니다. 이 가운데 마조선사가 말하고 있는 '평상심'이란 두 번째 해석에 가깝습니다. 제자리 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본래심' '본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마조 선사는 <전등록>(선의 역사서)에서 평상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이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마음, 시비가 없는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평상심이란 버리고 취하는 마음(차별심), 편견과 고정된 관념, 범부와 성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마음이다.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다."(<전등록> 제28권, 馬祖章) 이상에서 본다면 마조 선사가 말하는 평상심이

은 무형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순전히 스스로 만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승님, 아무리 제 마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 내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었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화를 단순히 재치 있는 이야기거리쯤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안심법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은 영영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지(機智)의 이 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180도로 돌려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하면, 하루하루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는 아무런 발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선에서 '평상심'이란 번뇌가 없는 '평상무사(平常無事)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바로 선승의 마음이고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평상심이 곧 진리(平常心是道)'라는 말은 원래는 남전선사가 처음 썼던 말입니다. 하지만 마조선사가 워낙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의 언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사유방식은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물을 바탕으로 앎을 지극히 한다'는 뜻으로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현실과 사물 속에서 고증하는 것입니다. 임상실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확인합니다.

'평상심이 진리'라는 말 역시 '격물치지'의 사고에서 나온 말로서 일상적 삶 속에서 선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창화 민족사대표



# "나를 사랑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일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어렵게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만나야 했다. 30대 초반에 만난 부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나의 고정관념 속엔 '우상'이라는 두 글자로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갈등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부처님을 진정 사랑하게 만들어준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됐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 마치 망망대해에서 조각배를 만난 것처럼 설레었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환희로웠다.

진리를 차차 알아가니 온통 참회할 일 뿐이었다. 흠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이 나 외아들인 남편을 만난 것도 다 나의 입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나를, 가족들은 엄청난 반대로 몰아붙였다. 찰나찰나가 살얼음을 밟고

서 있는 형국이였다. 부처님을 뵈고 오는 날이면 나는 당장에 무애한 부처가 돼 있어야 했다. 삼독심(三毒心: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은 날마다 아파트 난간에서 죽음을 연습했다.

부처님께 열드려 절 할 때마다 눈물로 호소했다. 나의 입장 '백경중안 쌓은 죄업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풀이 불에 타듯 남김없이 자라지네'가 돼 지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천수경>의 이 법어는 내 마음속의 진언이 돼 외어졌다.

무엇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드는지 자빠져도 코가 깨어졌다. 집안일도 남편과의 사이도 엉망이 돼 갔다.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오는 불화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정신까지 황폐화돼 정신과를 찾게 됐다. 한번도 마음 편히 부처님을 뵈려 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져갔다. 마음의 분노는 날로 치달아 눈동자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듯 했다. '견디지 못할 시련은 부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라는 법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럴 즈음 내 삶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다. 종로의 어느 사찰에서 노인무료 급식을 하는 곳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100~300여 명까지 오시는 분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부처님을 다시 뵈게 됐다.

그 인연으로 만난 법상 스님(덕양선원장)은 나의 마음을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어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방하착(放下着; 내려놓기) 수행으로 마음

의 주인이 진정 '나'이며,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주의 창조자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을 계속했다.

'모든 것이 한 마음 안에 있음을 그 고통의 시간엔 왜 몰랐을까?' 하고 생각해



임명자 시인

盡)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어(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가 과연 될 수나 있는 것인가 하며 괴롭던 그 많은 날들은 이제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삼독심의 실체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다니, 이걸 마치 꿈속의 일인 것 같았다. 그 후 암을 제거하기 위해 몇 달 사이에 대수술을 4번이나 하게 됐고, 수술이 잘못돼 중환자실을 오가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남편이 부처님을 진정으로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제야 나의 기도가 무르익는 것인가 보다. 남편의 일을 겪은 후 죽음은 슬퍼 할 일이 아닌 그저 삶의 연장임을 알게 됐다. 답답해진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많은 분별심에서도 놓여났다. 덕양선원 온라인 카페(cafe.daum.net/zeol)를 운영하면서 마음에 어려운 짐을 가진 분들께 아픈 남편을 보듬어 줄 수도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이 닥치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그때 다가오는 대로 맞아 해결하려 노력한다.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다. 백만 독 독송을 목표로 향해 가는 대비주 수행은 나를 이렇게 넓고 크게 키워주는 수행이 되고 있다. 끊임없이 정진해 자리타와 동체대비를 행하면 내 마음에도 연꽃이 필 것이라 믿는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님, 당신은 진정 부처님이십니다.

임명자 시인 (법명 지심행, 덕양선원 카페 운영자)

## 백천만겁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나 환희 입던 남편 죽음 문턱서 돌아오니 부처님 같아

보지만, 바로 이때라야만 되는 인연이었음을 지금은 안다.

방하착 수행으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무렵, 천수대비주 진연수행을 시작했다. 진연수행은 바깥은 시끄러워도 내면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함을 맛보게 했다. 대비주 수행으로 점점 분별심이 적어져 가는지, 누굴 만나도 반갑고 행복했다. 집안도 안정돼 갔다. 기도할 때도 '업장 소멸'이란 지상 최대의 발원은 언제 자취를 감췄는지,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중생을 위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발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업의 행진은 아직도 내게서 멀어지기가 싫었는지, 그렇게도 원망하고 미워했던 남편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다. 암이라는 말까지 들은 손님이 몸속 세 곳에나 번져 있었다. 진단 결과를 받고 온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엔 없었다. 그동안 참회는 다 거짓이었나 싶게 눈물로 참회를 했다. 순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0여 년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원망했던 남편을 향한 마음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통 내가 잘못된 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냐, 이걸 뭐가 잘못된 것이야! 그동안 내가 잘한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며 더욱 서러워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찾아 봐도 남편에게 미안한 일 밖엔 남아 있는 것이라곤 없었다. 기도를 마치고 남편에게 다가가 진실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나를 사랑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합장했다. '백겁적죄집 일념돈탕진(百劫積集罪 一念頓蕩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사바타 센터**  
 전회주시는 본래는 연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전회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69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9년 1월 20일까지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성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